

그것이라
살후 2: 1-2

伯林四國外相會議의 意義

나면 千先 成功하였다고 云口
는 美國官邊爾의 意見에 如實
히 나타났었다. 왜그러는가? 그
것은 서로 立場을 달리하는
英佛과 結束을 굳게 維持하기
爲해서는 英佛이 希冀한 이
會談을 가질必要가 있을뿐 아
니라 이 別成果가 實量 會談
을 通하여 空懸에 剩科를 주
지 않고 그 結束을 그로써 持
續할 수 있다면 그것은 美國派全體에 對한
아니라 自由陣營全體에 對한
利益이 되기 固然是이다.

그러나 空懸願度를 云口因
이 會談을 利用하여 自由陣營
의 結束을 弱化시키고 英國과
佛蘭西와 美國과 離別시키고
特히 微妙한 立場에 있는 佛
蘭西와의 接近을 꾀하여 空懸
의 目標인 「歐洲軍條約」의 破
壞 乃至는 遲延을 가져오는 데
프라스가 되면 이 會談은 成
功일 것이다. 特히 모로토프가
會談第二日の 演說에서 「空懸을
如何한 나라보다도 佛蘭西、獨
逸과의 永續의 友好關係을
確立하는데 關心이 있다」고
한 말은 意味深長하다. 元來

서는 朝鮮과 立場이 類似한
 아니라 會議이 決定되므로서
 懸案의 歐洲軍條約의 批准 이
 重要 當함을 認識할려는 態度
 도한 朝鮮에 利하다고 한 바
 리 發二十三日 外電도 首肯
 與수 있다. 英國의 立場은
 東西問의 緊張緩和와 貿易
 促進에 關心이 있음은 周知의
 바이나 이번바에 이 朝鮮에 對
 한 保障을 提案한것도 自明
 한 일이다.

그러나 이 會議이 美國과
 朝鮮의 獨逸統一과 오스트리아
 아 講和 問題에 對한 原則이
 變更되지 않은 限 議案의 三
 要件인 一 五大國會議 二 獨
 逸統一問題 三 오스트리아 講
 和問題는 合意할 場合 없으면
 生美, 朝鮮의 原則이 變更할수
 없는 것은 처음부터 確實한
 일이다.

그외에 關於 이 會議에는
 마루보 成果가 尙舊한 點이
 하되 決코 그렇지 않다. 英國
 과 佛蘭西가 主權하듯이 解決
 할수 있는 작은 問題, 例를

基督精神

韓日基督
有志親

회의의 원만한 결판과 나아가서는 두 진영 근본 문제인 냉전 해소에의 서광이 보이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 한국 민족이 특히 바라는 것은 한국 문제 해결의 정치회의에서 기대할 만한 한국 통일 방안이 있는가 불고자 함이다. 그렇지 않거든 독일 문제 오스트리아 문제와 함께 한국 문제의 근본적인 토의를 베풀린 회의에서 또는 그와 대등할 만한 회의에서 소련과의 해결점을 얻기를 바라는 바이다. 정치회의가 미소 공위의 재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난 三十日午後七時 東京福
田韓國 Y M C A에서 韓日基督敎
界指導者有志親善懇談會가 韓國
Y M C A主催로 開催되었다。韓
日問題가 惡化되는 憂念 昨今
兩國의 基督敎界指導者有志가
모여 그리스도의 精神 아래
兩國間의 理解와 親善友愛를
強調하고 相互協力을 期하기
위하여 開催된 것인데, 日本獨
에서는 東京 Y M C A理事長 小
林喜一氏 同理事 日本基督敎國總
會議長 小崎道雄氏 并各理事七人,
同總主事 木本茂三氏, 主事一色
俊一氏外 二人, 與 Y M C A同



「반역자」

원래 제일 교포의 저명한 지도자의 한 사람이요 일제 시대에는 九州 이사하야 형무소에서 순국한 윤봉창 백정길 씨등의 대 반역 계획에도 관계가 있어 十六年이란 긴 세월을 옥에서 보낸 이강훈씨는 이 반성명서를 발표하고 인전측과 손을 공했다 한다. 한편 인전측의 간행물 기타에 의하면 이강훈은 민족 반역자요 분열 책동자요 경시의 스파이였으므로 이를 모 든 조직의 관계 지위에서 해임시키고 속청하였다는 기사가 만재해 있다.

나는 여기서 그의 문제에 관하여 그 동안의 시비곡절을 개어 올리고 그를 밝히려는 것이 아니다. 이씨는 연전 대한민국 수립 전후에 김구 선생의 남북 협상 노선에 기약을 같이하여 민단 진영과 손을 잡고 구「검청」의 중간 노선 분자와 행동을 같이하여 민전의 의장의 자리에 있었던 것인데, 이 때에는 민전에서까지 반역자라는 패를 붙이고 나왔으니, 앞으로 당분간은 그의 정치적인 무대를 잃었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그의 과거사를, 보아 아까운 일이 다. 이것은 비단 이씨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인 태도와 행동을 예매히 또는 경솔히 하여 신세를 여긔지게 하는 일이 허다함이 오늘날의 우리 나라의 현실이다. 제일 교포 청년 중에는 자기가「레지스산트」임을 자부하고 행동하는 이가 많으나, 한 번 생 각할 문제이다. 편집자

福音新聞主日을 지키는

在日大韓各教會에 드림

聖恩中貴教會日就月長하옵시기를 삼가 기도 하오며 本紙發展을 위하여 物心兩面으로 尙常 원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就白 去年十月에在日大韓基督敎 第九回 總會에서 福音新聞社를 爲하여 來二月主日 二月七日 各教會가 特別 捐補하기로 決定하게된것은 本社로서는 무엇보다도 榮光으로 생각하오며 來二月七日 主日을 크게기대하고 있습니다. 本紙는 在留僑胞의 敎化와 在日우리敎會發展에 不可缺의 存在이라는것과 責任이 重大함을 自認實感하는바입니다. 特히在日大韓基督敎 各教會와江亞有志諸賢의 積極의인 援助가 없이는 到치그 使命을 達成하기 어려울것으로 생각합니다. 二十世紀는 文書傳道가 必要하다는것을 海察하시사이빈捐補에 크게 注力하시어 結果가 크도록 하여주심을 거듭거듭 바라나입니다. 捐補하신분은 本社專務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라나입니다. 接收하는대로 本紙에 發表하여 謝意를 表하고자 하나이다.

一九五四年一月十八日

東京都千代區神田猿樂町二丁目四番地

福音新聞社

社長 吳允台
主筆 田榮澤
專務 俞錫潑

謹白

로友好親善

善惡談會

盟副總主事永井三郎氏等 모두 十四人、韓國側 東京敎會牧師 吳允台、韓國 YMOA 總務 金禹鉉、前駐日公使 金龍周、前 서울大學總長 張利郁、前川崎敎會牧師 尹河榮諸氏外十四人이 出席하였는데、多彩로운 부로그림으로 友好裡에 同會合을 끝마쳤다 한다.

그리고 金 서 중 가장 주목을 끈 것은 겨우 十二歲인 少年 韓君의 能熟한 피아노獨奏였는데、出席者의 큰 注目을 끌었다 한다.

第一次로千二百餘點

在日敎友의釜山火災救護物資發送

기보한 바와 같이 제일 대 제一次로 지난 十三日 大韓민 한 기독교 총회에서、거년말 국 주일대표부 大阪사무소를 부산의 중심지 인구밀집지대를 通하여 船便으로 釜山火災地區 貧乏 화재지 구호물자 수집을 基督敎救護對峙委員會 委員長 전일본의 소속 교회에 호소해 노진영목師에게 托送하였다 한다. 오던 바, 우선 지난 一月 上 다.

金까지 도착한 물자 (의류등) 一千二百四十餘點을 送荷하여 물자는 다시 第二次로 特送할



望臺聲

△여면이의 말에 의하면 대、재일 우리 교회 청년에서 「복음신문」을 협력 이용하지 않는 이유의 한 가지는 그들이 무슨 원고를 써 보내도 그대로 내지 않고 우리가 고치고 파는 것에 분개함이라 하였다. △이것은 어느정도 사실인 모양인데, 자기의 쓴 원고 꼭 그대로 실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말도 많이 들었으며 심지어 어떤이는 노성대말하는 것까지 직접으로 겪어 보았다. △사실 우리 「복음신문」만큼 외부에서 의 원고를 많이 채용하며, 또 거의 그대로 내는 신문도 드물 것이다. △학술강좌、論文、문예 작품은 勿論 그 밖의 「루모」기사 같은 것도 다 그대로 내고 있으며 또 이제까지 그리해 왔다. 뿐만 아니라, 될 수만 있으면 가까이 있는 이에게는 직접으로 준 (校正)까지 보게 한다. △그러나, 보도기사 (報道記事)만은 다르다. 가령 크리스마스 맞이하여 모모인의 감상담을 실고자 할 때, 그의 담화를 우리가 속기하는 대신 원고지에 써 달라 하더라도 그것은 보도기사로 취급해야 할 것이므로 그중 특색 있는 말만을 뽑아 신문문장 (新聞文章)으로 고쳐야 하는것이 원칙이다. △덧여놓고 자기가 쓴 대로 되지 않았다고 협력하지 않는다는지 얼굴을 붉혀 말버는다는 것은 불상식하기도 짝이 없는 일이다. 한 신문의 신문문장의 특장은 그 신문의 생명이니라고도 할만한 것이다. △本紙는 아직 本紙로서의 신문문장이 확립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이것은 本紙 편집자의 급선무이기도 하다.

더 저변에 組織되었던 民團은 消息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읍니다. 그前에는 누가 말하였는지 모르나 民團 앞으로 封鎖된 貴紙가 우연히 父母에게로 配達되었읍니다. 그후 發行된 때마다 계속해서 配達되고 있는데, 이 우연한 사실이 얼마나 식어진 양친의 마음을 북돋우어 주었는지는 여기 再言할 必要도 없읍니다

同學校修業式

京都教會夜間學校는 去年 十二月 二十三日에 第九回 修業式을 舉行하였다고 한다. 同校는 解放後부터 民族教育특히 우리의 國語와 民族課目을 勤勞青年 및 一般 日本學校에 在學하는 學生들에게 教授하여 그 敎課目을 通하여 基督教精神을 보급시키기 爲하여 設立되었는데 京都府知事認可의 各種學校이며 한 때는 數百名の 生徒가 모여들었으나 지금은 生徒數는 그리 많지는 않다고 하며 解放後후에는 京都社會의 青年層은 누구 할것 없이 同校의 修了者라는 것만 하여도 同校의 血胞 社會에 實현한 바는 크다 할것이다. 여러가지 惡條件下에서 今日까지 繼續되어 오는 同校의 運營에는 創立當時부터 지금까지 會長인 金錫淵長老의 努力이 合어 있다 할 것이다.

(京都發信)

(一面六段에서 계속)

게 된다면 이 會談이야말로 全世界人民에게 큰 成果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누구가 斷言할 수 있겠느냐!

軍備와 危險千萬한 小戰爭에 依한 東西間의 競爭이 이 會談으로 말미암아서 平和의 空氣로 轉換된다면, 적어도 이 會談이 그런 可能性을 줄 機會를 提供하는 것이라면 이 會談은 틀림없이 近代史上의 轉換點이 될것이다.

(以上)

☆ ☆ ☆

(後略)

一九五三年十一月五日
千葉県津田沼久田文〇〇
福音新聞社 貴中

基督教書籍

幹旋 希望

貴社의 發展과 諸先生님의 平素를 비나이다. 小生은 貴紙를 通하여 많은 感化를 받고 있는 者로서 감사함을 마지 않느 바입니다.

今般 小生은 個人的으로 貴紙를 購讀하려 하오나 如何한 手續을 밟아야 하오며 또 基督教 信仰에 有益한 書籍을 購讀하고자 하는데 指導하오나 當은 指導를 바라오며 宗教書籍目錄 같은 것 있사오면 惠送하여 주심을 仰請하읍니다. 一九五三年 五月十九日 生 基督申報社 貴中

同胞에게 貴紙宣傳

(前略) 就白 貴社發行 新聞은 無知음味한 在留同胞의 啓蒙과 宣傳에 實로 效果的인 新聞으로서 每號 無遠不送하여 주시니 대단 감사합니다. 新聞代金이 每月 何이온지 下敎하여 주시면 今後 在留同胞에게 많이 宣傳하겠습니다. 下回하기 바라나이다. (後略)

十二月二十日
在日大韓民國居留民團高知果本部
福音新聞社長 貴下 團長 〇〇〇

(四面三段에서 계속)

서 독일이 再武裝한다면 親西 歐政府의 勝利를 確立할 수 있을 것이다. 強力한 西獨軍事力은 東獨의 自由運動에 勇氣를 북돋우어 줄 수 있으며 漸進적으로 東獨에 있어서의 小勢力을 減少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소련이 東獨에서 그 힘을 잃게 될 때에는 衛星國家에서 노예狀態를 계속하고 있는 그들에게 自由의 날이 동트기 始作할 것이다. 이와 反對로 萬一 아데나워政府를 희생시킨다면 冷戰에서 우리들의 勝利는 期待할 수 없을 것이다.

布木都散賣商

李 大 植

京都市右京區四條通西大路東入下ル
電話 壬生(84)一四七一番

ホテル國際

元田 吉 郎

東京都新宿區西大久保一―三六二
電話 (35)〇二八二番



洋服地・人絹織物・ビニール製品
雨具類・カバン・袋物・各種帶品 卸
雜貨

輸出商

金澤商店

店主 金 沢 滿

住所 下關市伊崎町五三ノ八番地
電話 (2)三七〇四番
取引銀行 帝國銀行下關支店

水產物貿易及國內取扱

金玉堂商店

金 玉 南

東京都中央区日本橋濱町二ノ八九
電話 (66)〇五六〇番

講壇

어떻게 믿을까?

요한 十四〇一ト

요한복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컬으리라」하시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이 말씀을하신 예수의 한 경과 그 심정을 살펴보자 예수의 환경에는 악이 성하여 선이 머리들수 없이 되었고 그 사업은 수포에 돌아가고 제자들은 두려워 범법범하며 근심만 하고 있는데 오직 예수를 기다리는것은 십자가의 고형뿐이었다. 황송한 말이나 예수께서 만일 방랑전환을 하셨던들 일신의 영화를 만족히 누리셨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물리치시고 이럼말씀을 하신것은 오직 그에게 최고의 신앙이 있었던 까닭이다. 인도의 성웅 판디를 영국의 관청에서는 잡아가두고 일반호사(一般豪者) 계급과 유산계급에서는 저의 산양유(山羊乳)를 비롯고 그의 범거송이를 비롯고 그의 물레를 비롯고 그의 무저항을 비롯는다 그러나 수백만의 실직자들은 공장주와 유한계급의 몸에서 감진 수놓아 판 비단을 누를 겨보고 칼도없고 총도없는 천민계급들은 판디만 따르는데 어찌하라 감옥에 있어서 금식을 선언하면 일반민중도 호응한다. 판디는 말씀하였다. 나의 사상과 영감은 예수에게로 부터 받은바 많다고 또한 사울이 바울이라 이름을 고쳐게되기도 예수의 최고신앙의 강화를 임용이다. 저의말을 그대로 소개하면 「내가 깊이 아노니 사랑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장은자나 이제일이나 장래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값은이나 창조를 받은 아무 물건이라도 우리주님 그리스도 예수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예수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었던 것인 줄 확실히 알게된다. 그러면

東京教會의 點은 層에 寄書

金元國

信仰의 眞理는 항상 外部에 對한 伝道와 관계 要어져 있 지 않으니 안된다. 바울의 神 學으로서나 칼빈의 神學으로서 나 그것은 召命과 伝道の 神 學이지 단지 思策의 神學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항상 힘있는 行動이 要求되어 있었다. 만일 이러한 行動이 없이 神學의 研究가 되었다는 境遇에는 그것을 敎會의 비판 으로 銳鋒이 向하게 되고 敎 會의 德을 傷하게 하는것이 된다.	이러한 點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提言하여 보겠다. 그것은 敎會에 있어서 明確하고 바른 神學의 研鑽을 더욱 깊이 하	는 同時에 外部에 對하여는 敢行히 伝道意欲을 가지고 進 로운 伝道地를 開拓하여 간다 는 것이다. 그저 敎會出席을 어떠한 習慣으로 여기거나 俗 俗生活에 아무런 前進도 없는 敎會生活을 하거나 있지 않음 까? 新時代의 青年은 新時代 의 思潮가 무엇이라는 것을 明確히 意識하려는「不斷의 努 力」이라는 튼튼한 意欲이 있 어야 하며 確心에 있어 敎會 青年다운 마땅한 그 무엇이 態도와 行動에 뚜렷하게 나타 나는 것이 있어야겠다.	그러므로 혹 例를 들어 말 한다면 二、三者가 한個의 그 같은것을 만들어 相互修正
---	--	--	---

최고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곧 주께서 가지셨던 신앙이니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의를 나의 의로 시인하는 것이요 세째는 하나님께 나의 동을 피하심이다.

말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 예수 당시에도 예수를 죽은 선지자 혹은 엘리야 혹은 세례요한이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았다고 할까 같이 지금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원의 신으로만 또는 자비의 신으로만 저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 저의 말만 듣고 있다. 그래서 저의 하나님께서 저들의 요구를 구하다가 이루지 못하면 뭇개치고 깨뜨려 부수고 배반하는 일을 많이 본다. 이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신을 알되 지식적으로 분명히 아셨나니 그는 살아계신 사랑의 아버지이로 알았고 우주의 창조자이요 섭리자이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알았다. 2 하나님을 죽 아는 것으로만 부족지 못하다. 야고보 선생의 말과 같이 마귀들도 알고 본다 하였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의 거룩하	그러서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이 세 계로 하나님의 거룩하나사로 화하고 당신이 친히 주재하시느니라. 영생 사영 고물이 없고 오직 기쁨 사랑 생명 진리만 확 차 있는 제하들과 제왕을 지으시려는 것이 그의 목적이시다. 주는 이것을 시인하시라. 주는 이것을 시인하시라. 저의 사업으로 알고 영생을 이 일에 바치시었다. 주님만 그리 하신 것이 아니라 주를 따르는 최고 신앙을 가진 성도들도 다 그리 하였다.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업을 시인하고 그 사업을 나의 사업으로 바꾸어 그 사업에 몸을 바치려는 신앙이 있는가? 3 하나님에게 몸을 바치는 것 하나 남만을 알고 그의 사업을 시인한다고 완전한 최고 신앙이라 못한다. 여기에는 나의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있어야 한다. 곧 나에게 있는 소유를 부와 나의 몸과 나의 영을 주께 바치는 것이다. 이것이 말로는 쉬운 일일찌 모르나 참으로
--	---

妻에 鍊磨하는 모험에 隨時가 진다든가 88, 혹은 曰을 內 容있는 聖書研究會같은 모임을 通하여 知識의 神學을 爲 이工夫하는 同時, 十字架의 人格을 그대로 본받으려는 精 神的訓練과 人格을 完成하려는 修養이 있어야 되겠다고 믿는 다. 그러므로 獲得한 模範의 인 그態度는 한결을 나가 各處 에 散在하는 無量한 同胞에게 영향을 주는 開拓传道가 隨處 이며 또 德있는 母教會의 伝 道所를 만들어 낸다는 發展이 있을것을 믿는다. 이러한 神學研究의 念이 敎 會內部的 비판에서 各部로 傳 차 伝道되게 될때 젊은 青年 들의 全神 精神的 肉體의 活 動力이 既成敎會의 비판속에만 그치지않아 아니고 바울이 무	(MAEDONIA)에 對한 伝道의 幻想(行十六章大節以 을 보고 새로 구라파에 對 여 伝道를 開始함과 같은 어긋아 남이 東京敎會의 精神 層에서부터 脫離한 狀 戰爭으로 인하여 그 現實이 果然 비참하게도 荒廢되어 다. 그 荒廢落着한 狀態를 어떻게 復興하는가 現實을 바로 認識한 青年은 한참 虛의 念을 禁치 못할것이다 그러므로 社會의 良心이 되 야할 크리스찬 젊은이는 奮發 하여 한결을 나가 바울이 무
---	---

日本の再軍備

일본 기록 관계에서는 이제까지는 日本의 재군비문제에 對して M.S.A.의 수락문제등 정치문제에 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왔으며, 關係의 直接자 間에서도 이 문제에 對한 태도는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로 일본 기록관계의 재군비문제 등에 對한 태도는 사회 각 層의 주목을 끌기 시작해 왔으며 그 내부에서도 진지한 검토가 계속되어 왔다.

日本 기독교 중 가장 많은
교회와 장교하고 있는 日本
기독교단에서는 지난 十二日부
로하기는 어렵다. 예수와 같이
모든것을 다 바쳐 하나님은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어 하나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러한 불운에 빠
졌으나 태연하자 너희는 마음
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
었다. 아무런 암초에 잠겨있
고 검은용과 붉은용이 악기를
불어 우주에 꽂았으나 밀경
은 하나 남개로 승리가 돌아올
지언개 또는 聖地回復에 힘
쓰지 않으면 암암적으로 믿는
다. 때 역시 그러한 實踐者를
要望하고 있는 듯 하다.

敎會는 이같은 方向으로 青
年을 指導하여 個人으로서 研
究心과 活動心의 이 方面을
調和한 明朗한 青年基督者를
育成할 수가 있고 또는 團體로
써는 젊은 學生層과 一般層間
의 調整을 圖謀할 수도 있어
말 듯 그대로 内外兩面에 힘입
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 敎會一致
의 길을 推進시킬수 있지않을
까 생각된다.

결으로 神學에 專門知識이
없는 이 見解에 讀者中에 同
感할이가 있다면 依賴의 이
紙面을 빌리게 된것이 意義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滿足할 바
이다.

(筆者 政治學修士 早大研究生)

日本の再軍備と基督教界

일본 기독교계에서는 이제 더 이상 十四日까지의三日간에 걸쳐서는 일본의 재군비문제와 寺内 正次가인 片山 哲、松岡洋吉、松山元治郎、高良 道雄 等을 代表로 하여 東京에서 開かれた 日本 기독교 재군비문제에 대한 태도는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로 일본 기독교계는 재군비문제에 대한 태도를 통일해 왔으며 기독교계는 사회 각 방면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으며 그 내부에서도 진지한 검토가 계속되어 왔다.

日本 기독교 중 가장 많은 기독교를 代表하고 있는 日本 기독교단에서는 지난 十二日부터 十四日까지의三日간에 걸쳐 寺内 正次가인 片山 哲、松岡洋吉、松山元治郎、高良 道雄 等을 代表로 하여 東京에서 開かれた 日本 기독교 재군비문제에 대한 태도는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로 일본 기독교계는 재군비문제에 대한 태도를 통일해 왔으며 기독교계는 사회 각 방면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으며 그 내부에서도 진지한 검토가 계속되어 왔다.

첫일을 믿었다. 우리도 예수와 같이 모든 성도와 같이 몸 하나를 바쳐서 하나됨과 예수와 내가 하나되어 그의 사업만을 위하여 용전하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고생 죽음이 다닥칠지라도 용기가 생기고 그와 더불어 싸워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오른 三月五日은「世界祈禱의 날」

今年度獻金은 韓比兒童에게

日本教會의 行事決定

일본 기독교 재군비문제에 대한 태도는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로 일본 기독교계는 재군비문제에 대한 태도를 통일해 왔으며 기독교계는 사회 각 방면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으며 그 내부에서도 진지한 검토가 계속되어 왔다.

日本 기독교 중 가장 많은 기독교를 代表하고 있는 日本 기독교단에서는 지난 十二日부터 十四日까지의三日간에 걸쳐 寺内 正次가인 片山 哲、松岡洋吉、松山元治郎、高良 道雄 等을 代表로 하여 東京에서 開かれた 日本 기독교 재군비문제에 대한 태도는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로 일본 기독교계는 재군비문제에 대한 태도를 통일해 왔으며 기독교계는 사회 각 방면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으며 그 내부에서도 진지한 검토가 계속되어 왔다.

의 강연이 있었고 거기에서 한 발발한 질문도 있었다. 한 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의견과 태도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다. 기독교 전도자로서는 태도에 대한 통일된 견해는 얻지는 못하였으나 많은 계층적인 흐름을 거두었다고 하는 정도로 의견을 통일했다. 그러나 이러한 회의는 그 성질로 보더라도 정치적인 문제에 대하여 기독교의 입장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이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本紙第一〇七號 三面의 講壇 「信仰의 再檢討」는 金禹鉉 牧師의 說教을 本社에서 記한 것으로 그 文意는 本社에 있는 것임을 이에 明記한 福音新聞社

오른 三月五日은「世界祈禱의 날」

今年度獻金은 韓比兒童에게

日本教會의 行事決定

일본 기독교 재군비문제에 대한 태도는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로 일본 기독교계는 재군비문제에 대한 태도를 통일해 왔으며 기독교계는 사회 각 방면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으며 그 내부에서도 진지한 검토가 계속되어 왔다.

日本 기독교 중 가장 많은 기독교를 代表하고 있는 日本 기독교단에서는 지난 十二日부터 十四日까지의三日간에 걸쳐 寺内 正次가인 片山 哲、松岡洋吉、松山元治郎、高良 道雄 等을 代表로 하여 東京에서 開かれた 日本 기독교 재군비문제에 대한 태도는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로 일본 기독교계는 재군비문제에 대한 태도를 통일해 왔으며 기독교계는 사회 각 방면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으며 그 내부에서도 진지한 검토가 계속되어 왔다.

국내 국외의 기독교 전도에 사용하기로 되었다.

日本에서는 이 날의 헌금일 一九四九年度는 中國인들을 위하여 一九五〇年度는 韓國教會를 위하여 一九五一年度는 韓國의 목사를 위하여 一九五三年(작년) 一度는 비동양의 아동을 위하여 보냈으며 今年度는 韓國의 어린이와 비동양의 어린이를 위하여 보내기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일본의 위

일본에서는 今年度の 세계의 行事에 어린이도 참가하게 하기 위하여 각 府縣의 주일학교에서 各 教會 主日學校의 특별 부로그만을 작성할 것이며 廣인을 위한 青年 奉仕會도 작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날은 東京都 飯田橋의 富士見教會에서 「기도의 날」의 연합집회가 열릴 것이라고 한다. (基 連)

오른 三月五日은「世界祈禱의 날」

今年度獻金은 韓比兒童에게

日本教會의 行事決定

한국 요리법

매밀만두 (열다섯 그릇)

재료 (열다섯그릇)

매밀가루	오홑	호추가루	조금
계란	세개	깨소금	한큰사시
숙주	삶아서 한보시	기름	한큰사시
김치	한포기	소금	조금
두부	조금	표고	다섯조각
정육	한근	실백	한종지
간장	한종지	파	두부리
물	적당히	마늘	두쪽

매밀 가루에 계란을 깨뜨려서

끓여넣고 반죽을 하는데 너무된 때에는 물을 가지고 미음을부어서 넣고 반죽 할지니라.

2 만두 속 만드는 법과 장국 끓이는 법은 위에말만두 만드는법을 읽어보고 그 대로 할지니라.

(비 고)

만두속에 넣는 고기는 제육이나 콩이나 닭고기나 어느것이든지 다 맛있는 것이니라.

한글 교실

(제 37 시 간)
張 曉

한 낱말 안의 받침을 어떻게 구별하여 적을 것인가 함에 있어 지난 시간에는 그 범위를 대강 말한 것이고 이 시간부터 하나 씩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통일안에서는 그 하나하나의 규정을 전문적 술어로 설명해 놓았으나, 그것을 일반이 이해하기는 대단히 힘든 것이며 또 그것은 어휘학적(語彙學的) 규정인 것이어서 그 차례를 따라 축조 설명해서는 도저히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나는 축조 설명을 떠나서 가장 알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또 통일안에서는 어원 표시(語源表示)의 규정과 품사 합성(品詞合成)의 규정을 따로 세웠으나 여기서는 한 낱말 안의 받침으로 한꺼번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설명의 방식도 통일안과는 전혀 다르게 해보겠는데 이것은 내가 처음으로 해보는 방법인가 합니다.

(/) 둘 이상의 따로 쓰이는 말이 합쳐서 한 낱말이 된 것은 각각 그 따로따로의 부분의 끝(形)을 밝히어 적어야 합니다.

- 1 받침이 있는 몇 부분이 당소리 소리마디(子音音節)와 합쳐 적
국그릇 눈물(淚)
만딸(長女) 맞집(對拜)
밤낮(晝夜) 밥벌이(求食)
옷속(衣內) 꽃철
(임자씨+임자씨)
검잡다(收拾) 돌보다(重視)
잇달다(連續) 낮보다(低視)
낮잡다 (줄기+풀이씨)
- 2 몇 부분의 받침이 아래의 부분의 첫 당소리 때문에

- 소리값이 달라지는 것
국말이 만며느리
칼날(刀刀) 밭물
젓몸살 몇날
홀몸(單身) 흙내(土香)
(임자씨+임자씨)
검나다(怯) 결늬다(耄老)
(임자씨+풀이씨)
받내다(受便) 방놓다(放縱)
맞먹다(對等) 앉누르다(抑壓)
굴주리다(蝸)
(풀이씨 줄기+풀이씨)
- 3 받침 있는 부분과 홀소리로 시작하는 부분이 붙은 것
손아귀 홀아비
밤알(粟粒) 집안
친어머니 큰언니
살얼음 물오리
속웃 손위(手上)
눈웃음 참외
(임자씨+임자씨)
속없다 철없다
(임자씨+풀이씨)
 - 4 받침 있는 부분이 홀소리 위에서라도 제 소리값(音價)이 다 드러나지 않을 적
웃안 부엌안
꽃아래 무릎아래
팔알(小豆粒) 젖어미(乳母)
홀웃 (임자씨+임자씨)
값없다 넣없다
웃오르다 (임자씨+풀이씨)
이와 같이 둘 이상의 따로 쓰이는 부분이 합쳐서 한 낱말(單語)이 된 것은 그 소리값이 달라지고 없고 간에 다 본디의 끝(原形) 본디의 받침을 밝히어 적어야 합니다
“웃안”이 “오산”이 아니고
“올안→오단”인 것과, “홀웃”이 “호웃”이 아니고 “홀웃→호웃”임은 저 말소리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입니다.

소련의 냉戰戰略

評論家 윌리엄·H·찰바린

野球試合에 있어서 投手가 공을 던지지 않고 우물쭈물하는 것을 試合의 마지막에 흔히 보는 바이나 이것은 相對方「팀」의 點數를 획책하려는 것을 防止하는 것 以外의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國際外交戰에서 크레올린이 지금 이러한 術策을 쓰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소련은 현재 冷戰에서 勝利를 거두하여 왔다. 우리가地圖를 펴 놓고 一九三九年과 지금의 소련을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나 第二次世界大戰과 西歐諸國의 進歩性의 結果로 소련의 統治者들은 中歐의 방대한 領土를 획책하게 되었으며, 住民 約十億이 그傘下에 놓여지게 되었다. 소련 勢力은 지금 일찌기 프야帝國이 품구던 野望보다도 훨씬 더 西歐를 밀어내었으며, 아시아에서도 全中國을 손에 넣었으며, 全世界의 領土 五分之一과 人口 三分之一을支配하게 되었다. 現美國務長官 델레스氏가 現職에 있기 前에 中國의 重要性을 다음과 같이 爭을 終結시킬 수단이란 없는 것인가?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나, 우선 解決해야 할 것이 決定的인 結果가 나타날 수 있는 點數에서 考察하여야 할 것이다.

크레올린이 소련 國民과 그 衛星國의 國民에게 指示하고 있는 神經戰은 口口口 放逐을 통하여 數年間에 걸쳐오나, 産業的 그리고 軍事的 團結으로 그들의 戰略을 使用할 수 있는 體系를 完遂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렸다. 萬一 그들이 할 수 있을 때에는 그들은 強力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戰爭으로 그들의 野心(世界政服의 夢을 實現)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소련이 지금 現狀으로써 그 衛星國을 利用하여 戰爭武器를 供給하기에 開發하기 위하여 저 野球試合에서 爲하여 저 野球試合에서 是는 術策을 使用하고 있다는 것은 勿論 事實이다 昨年 十二月에 소련이發表한 聲明이 어느 程度 妥協의 氣運을 보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나, 그 動機는 西歐外相會議로부터 어쩔 수 없이 하였던 것과 그리 期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鐵의 장막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여금 自由體制로 생활할 수 있도록 戰爭을 終結시킬 수단이란 없는 것인가?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한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西歐에서 早速히 힘의 均衡(BALANCE OF POWER)을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反共歐파共同體에서 西歐의 再武裝과 政治的 平等을 期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現狀의 反共主義者로

詩

星 座

黃 命 東

귀를림과도 흡사하고 공립제없이 매미소리, 돌집에 기는 달장은 바람이 울적하다 觸手있는 증성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어제그제사 개인 장마비의 냄새가 스민 이불에 누워, 멍하니 그대 눈방울을 구름이 한층 흘려갔다. 고달픈 한여름의 呼吸이 불순에 오는 별래소리와 서로 술가배, 그대 나뭇잎 발발음이 맺어 흙배 불은 손가락이 허공을 어루만지며, 그대는 찾는 다 그대는 찾는 다. 그대와 나와의 星座를, 다시 수많은 사람들의 星座를.



『行方不明』

掌 篇

姜 舜

엄두를이 까만 뽕그린 방이 려지나 엄중선한에 한데일을 다. 아이들이나 떠돌거리며 마 저주었으면 싶었으나 주위에 못이겨 예비를 기다리다 발 서 울음이 났었다. 차비를 에 놓았을 무렵에 안개가 짙게 깔리고 남은 것으로 사 물고 을 걸어 들고 밖에서 들어오 고 코를물고 는 아이를 머리 발에 꼭 두지곤 정수(正珠) 「저어.....」 정수는 거를떠보지도 않고 「또 저것이 돈 떠러졌다 는 소릴게지. 번장 빌어 먹을 살 비일밖에 없다. 이맛살이 찌푸 림.」

말도 없이 속량이 끝났다.
안해는 안해대로 식구들 때문에
활판에는 노동판에까지 나선
남편이라, 오늘날도 실상에 발을
을 하노라 얼마나 멀다 왔을
가 생각이 가니 주섬주섬 개
키는 팔래도 제되롭지 못하였
다.

「저어.....」
또 말은분으로 뒷말이 잇따라
나질못해 애쓰다. 그렇다고 잠
자코 있을 일이 있지, 어렵기
만 한 남편에게 막 사웃말이
나가려는데

「저어라니」
정수는 저 기적이 또 무슨
소릴하려고..... 시원스리 터
놓질 못하고, 잔뜩 못마땅하다
만 안해에게는 그만만해도 물
어주는 판에 얼핏

「오늘 할머니가.....」
「뭐? 또 어딜 가셨단 말이
지?」
그제서야 안해를 쳐다 보며
불린소리다.

「모욕가신다 나가셨는데 아직
도 양이 돌아 오능구마.」
「이번에는 또 어딜 사질렀단
말이야. 전장 마질.」

그러고 보니 일상같이 밤
상머리에 앉았더니
「내 나이 팔십이 넘도록 손
자 길러 너 번 것을 먹으니」

아 애미까지 심정들이 고아.」
하다가도 좀 거실리는데가 있
다면

「죽어마 죽어. 여 이놈아,
심정을 하루 먹어야다. 수다천
리에다 날 데려다 놓고..... 하
놓이다 내려다 보신다.」

아 차 보이질 않았구나 싶다.
그렇다고 해서 놀라워 격정에
서 튀어나온 뭐한만이 아닌
것은 변연하다. 한달치고 한차
레씩은 일어나는 행방불명이니
지금 와서는 외려 없는 말이
수상할 지경이다. 이 주위에
허동될 노친이 불상해서 뿐만
이 아니라 사실은 또 없는
돈을 장만할것이 더 안타깝다.
다라 준 이름표는 사실이 못
가서 피어 버리고「나 이전
아무데도 안 나간다」던 할머
니 변덕이 한없이 많았스런
다. 노랑도 노랑도 별관 여늬

은이라 아니 먹을 가진 추운
을 감수하여 왔다고 알아 배
길수는 도저히 없고
「그래 찾아 나 봤나?」
「가실만 먼 양이 계시고 고
방(駐在所)에 갔더니 도야!
모른다 하십니다.」

이러고 보니 통소문을 노아
찾아 낼수밖에 도리가 없어졌
다. 이럴때마다 등을 쏘아져
나오는 고적이 정수에게 있었
다. 손을 빌려 줄 사람이 막
무하다. 사람이 아슬기 폭이
없구나! 이곳에 동포들이 심
여가호 살건만 친공(義兵)아
닌 예수정이는 반동이라는 무
시무시한 장벽이 가로노여 판

나라 사람만치도 못하니 가서
통 사정을 한다면부터 차라
리 패북이라는 뱀장이다. 그러
고 보니 아침 인사 하나까지
없어져 바름벽 한장이 영원한
거리로 병정과 질시가 커졌었
다. 생각하면 무지에서 오는
오해가 많지만 정정(政爭)은
영문 모르는 이들까지 이렇게
들 심정을 흘가닥 뒤집어 놓
고 말았다. 한참 공리 끝에

「집에 있는대로 돈을 내와
팔십원이 이 주머니 저 주
머니에서 모아 번 것이나 이
절로는 어림없는 금액이다. 부
탁할 사람의 밥찬음이야 사내
야겠지, 늙은이가 신세치고 있
을 집에도 그저 출출을 수야
없는 일, 길러 오질 양으려면
찾았은 씨야지, 죽어 써도 기
천원이 들른지 모르는 일이다.

생각다 못해 조석바람을 막아
주는 외투를 싸 들고 나서려
는데 안해가 무슨 군속이 있
는지 하는 소리다.
「포메 기다리소. 그걸 들고
잡이면 내일부터 어떻게 할꼬?
.....」

안해가 나갔다. 얼마만에 구
거진 천원 한장을 남편 무릎
앞으로 내린다. 이것봐라. 어디
서 제법 들고 온다! 「가마
니 바라는 걸이로야 그럴진
데 이런 어려운 일이 터지면
반공도 친공도 없는 내 동포
라는 핏줄이 있거니. 그들중에
누구이리라 믿고 싶었다.

「거, 웬 돈, 김씨네 갖지?」
김이기를 바라서다. 김이란

해방후의 흥분가운데 같은 표
적(敎職)을 보는 한 두집
질러 살면서 절친히 지다던
터수였다. 그러나 그가 소위
태도를 지은 뒤로는 자연 사
이가 떠 있었다. 정수 역시
견디다 못해 표장에서 나와버
렸으니 그만한 피 무던한
면이었다. 일반 옹호하며 일반
자기편으로 끌어 넣으려다 종
래 말 들릴 않는 정수와는
어느새 의식적으로 적대시가
되어 버린 사람이다. 앞다 갈
리 사이가 조직자로 두각을
나타내면서는 그가 적은 일
큰 일 눈에 가시처럼 정수를
노리고 있었다. 한한 날에 다
들 이 번사를 알고 있었던만
한 늙은 드러다 보지 않음에는
이런 약감정이 바탕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런 두 사이였으나 이 두
사람의 여면들은 간날의 정
분을 가만가만 유지하고 있는
눈치라 행여나 내 기집이 겁
부락 잠을 때쳐렘 갖지나 않
았을가, 또한 이럴때야말로 그
악스리 떠올려 대는 그들의
참된 지도성을 발휘할때 보다
민족애니 인간애니 하는 본체
를 엿볼수 있는 기회이거나
싶었는데

「말도 마이소. 네! 상터러 정
지서 하는 소릴 들었는지 와
락 문이 열리며 김상이「이승
만이 한테 가라」고 벼락을
치든구마.」
무식한 안해도 어지간히 원
통질통하였던가 보였다. 그러나
정수의 분길의 성질에는 비길
것이 못 되니

「아, 이 망할녀아, 누가 너더
러 하릴 거길 가라더냐?」
벌떡 일어서며 정수의 치어
든 팔이 벌벌 떨리었다. 이
바람에 적은것이 소수라 처
꺼여 놀라 엄마를 웅위하며
울며 재긴다. 떨리는 팔아래서
불었다 푸르러진 안해의 상판
을 내려 노리는 정수의 눈에
는 그만 눈물이 출렁이었다.

「못살놈의 씨알종자, 주의는
무엇때때 하는거야」
거칠은 소리가 막 튀어나
갔다. 그러니 모든 죄가 집나
간 늙은이에게 뒤집어 씌어질

수밖에 없다.
「죽든지 살든지 내 알 바야
한말 걱정이 성글 나갔으니
진정하고 보면 역시 이러구
저러구 할때가 아니었다.
「그럼 누구내란 말이야」
「야오야(차소점)집에 가서
말하냥광 갔다 쓰래서.....」
정수의 끝수에 사무친 반일
감정(反日感情)을 아는 안해
이니만큼 서슴거리는 대답이다.
저거이 오죽해서 그런 궁리까
지 내렸을라 하니 측은한 생
각이 들었다. 가슴 찢르르한
만화인물이 자기 같기도 하였
다. 이것 저것 생각다가는 밤
이 될 노릇이다. 잠돈은 두면
서

「불이나 피고 국이라도 달혀
노아」
한말 편지고는 됐던 외투를
도루 주서 입고 눈빛바람 매
서운 겸한 열시가까운 어
둠속으로 정수는 나 섰다. 달
도 없는 그늘개이었으나 눈위
라 그리 어둡지는 않았다. 보
다 안해의 면상에다 퍼부은
그 방정거린 칼날이 지금은
정수의 가슴 깊이 박혔으니
어둠도 추위도 문제가 아니었
다. 자전차방에 가서 사글차를
내려 타고

「오냐, 온 세상을 굴러 다녀
서라도 나 혼자 찾아 내 보
인다」
요령을 흔들며 차를 굴러었
다. 역사의 앞날이 어떨지
정수에게도 짐작이 있는 사람
이었다. 그러나 여사의 정의
가 행방이 불명이 되질 않거
에는 역사를 지어가는 주인공
이 인간으로의 깨침과 더부러
누티가 커가야 할것이 아닌가.
「눈물 없는 기계」
「두구 보자」

언 귀를 비비며 언 발을
굴리며 정수는 혼자 중얼거리
었다. 자기 감정에 사로 잡힌
정수는 우리의 현단계를 잊은
듯이 슬펐다. 찬 바람에 펄펄
불리우는 정수의 머리칼 위에
선 파란 별들이 일고 있었다.
그러나 동으로 가서 묻고
서으로 가서 묻건만 할머니의
종적은 좀처럼 알아 낼수 없
었다.